

광주 학교 점자안내기 절반 '엉터리'

시교육청 15억원 들여 설치 제구실 못해

규격제품 사용 않고 음성유도기는 '먹통'

초등학생 팔을 둔 시각장애인 학부 모 최모(여·38)씨는 최근 아이 문제로 학교를 찾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안내기(시각장애인용 안내·유도시설·사진)를 어렵게 찾았지만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식 무선리모컨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가야할 방향 조차 알 수 없어 막막했다. 할 수 없이 호출기를 통해 직원을 불러 안내를 받고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선학교에 설치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기 절반 이상이 규정에 어긋난 '엉터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

이 알고 있다.



기 어려웠다.

또 하단의 알루미늄 점자판은 예리하게 돌출돼 있어 부상의 위험도 있었다. 소리로 위치를 안내해주는 음성유도기 또한 정보통신표준제품이 아니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소지하고 다니는 이동식 무선리모컨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긴급용 무선호출기도 없었다.

인근 중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9월 50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는 점자안내판은 무선리모컨에 의해 작동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 표준제품이

아니었다. 전원 또한 상시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건전지로 운영돼 필요할 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았다. 무선호출기는 설치되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재활용해 설치했고, 제조사 임의대로 신호케이블을 외부로 노출되는 등 불법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철 장애인취업상담소 팀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음성유도기 대부분이 불량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왕 설치할 거라면 표준 규격을 정하거나 다른 기기와도 호환성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점자안내기 설치와 구입은 각 학교별로 S2B(학교장터)를 통해 지침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안다"며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설치와 운영 오류는 현황파악 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득하위 70% 대학생 100만명

등록금 35% 경감

내년 국가장학금 5천억 확대

내년 소득하위 70%(1~7분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된다.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더 지원받는다.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내년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신입생에 대해서는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학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 7500억원에서 내년 2조 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이 금액을 소득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에 비교하면 1~7분위 학생의 경우 전체 학비의 34.7%에 달한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1~7분위 학생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3분위 이하의 학생으로 대상을 한

정하면 학비 부담 경감률은 40.3%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비 완화율은 올해 1~7분위가 25.2%, 3분위 이하가 30.7%였다.

국가장학금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I 유형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였던 수혜 대상이 4~7분위로도 확대된다. 수혜 금액도 커져 소득 1분위가 1년에 받는 장학금이 2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90만원이 늘어난다.

2~3분위는 각각 202만5000원과 135만원을 받아 올해보다 67만5000원과 45만원이 증액된다. 기초생보자는 45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4~7분위는 소득에 따라 112만5000원에서 67만5000원 사이의 장학금을 받는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라는 재학생 성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내 고사장은 어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7일 광주시 서구 화정중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JNJ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정남진 투어 **꽁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 까지 주중항차 *금토 강릉 / 일 성선 출항 항차는 제외

선착순 3,000명 (시전예매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정남진 투어 이용시 20% 할인 ~! 선박최고 40% 노력항까지 버스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장흥→제주 (오렌지호)
완도→제주 (블루나래호)
목포→제주 (씨스타 크루즈)
녹동→제주 (남해고속)

한글날 다시 쉰다

내년부터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제조사 임의대로 신호케이블을 외부로 노출하는 등 불법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철 장애인취업상담소 팀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음성유도기 대부분이 불량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왕 설치할 거라면 표준 규격을 정하거나 다른 기기와도 호환성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점자안내기 설치와 구입은 각 학교별로 S2B(학교장터)를 통해 지침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안다"며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설치와 운영 오류는 현황파악 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15일로 늘어난다.

오늘 날씨

해물 07시 00분 해진 17시 32분

달辱 00시 33분 달진 13시 40분

아침 안개주의

구름많고 아침 한 때 안개가 끼겠다.

광주	구름많음	7/16 C
목포	구름많음	10/15 C
여수	구름많음	10/16 C
나주	구름많음	6/16 C
완도	구름많음	9/16 C
구례	구름많음	5/16 C
강진	구름많음	6/16 C
해남	구름많음	7/16 C
장흥	구름많음	7/16 C
순천	구름많음	5/15 C
영광	구름많음	7/15 C
진도	구름많음	8/15 C
전주	구름많음	6/14 C
군산	구름많음	7/14 C
남원	구름많음	3/14 C
흑산도	구름많음	12/15 C

〈오전〉 바다 풍향 풍速

서해 남부 일비단 서~북서 0.5~1.0m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일비단 서~북서 0.5~1.0m

서~북서 10~1.5m

주의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풍速

서해 남부 일비단 서~북서 0.5m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일비단 서~북서 0.5m

서~북서 0.5~1.5m

주의 낮음 낮음

◇주간날씨

날짜 풍향 풍速

날씨 08:18 01:51

최저/최고 8/17 20:57

날씨 8/16 13:58

날씨 10/14 04:01 09:52

날씨 8/12 16:24 22:46

날씨 7/13 5/11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전교조, 애들 굽기는 파업 지지?

급식조리원 총파업 관련 교육 실시 검토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9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지하며 파업 관련 교육(계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전액을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정씨의 보

험은 보상한도(1억원)가 정해져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로도 지나다 굽다리에서 걸어 나

오던 행인과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

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

고했지만 2심은 피해액(400만원)을

보험으로 전액 배상할 수 있다며 공

소 기각했다.

/연합뉴스

업(9일)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직접 가르치겠으며 수업시간을 활용한 계기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정미경 사무국장은 "애들의 끼니를 볼로 모든 파업을 교사들이 이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중·고교 부당 수의계약 적발

송덕고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시교조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신 중은 2010년 3월 88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 조경회사와 공사금액을 낮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덕고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시교조 감사에서 적발됐다. 금파